'베비에르 과자점' 롯데백 전주점 입점

건강한 광주 토종 빵집
친환경 재료 고집
독특한 판매 전략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26일 지하1층 식품관에 전라도 광주 토종 빵집인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 마옥천 입점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26일 지하1층 식품관에 전라도 광주 토종 빵집인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 마옥천 입점한다고 밝혔다.

'베비에르 과자점' 토종 빵집(과자점)은 서울의 김영모 과자점, 부산 겐츠 과자점, 대구 풍미당, 대전 성심당, 전북 군산 이성당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향토 제과점이다. 1991년 광주 서구 월산동 돌고개에서 33㎡ 남짓한 작은 동네 빵집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본점 등 9개 매장에서 연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명물 빵집'으로 자리를 잡았다.

대형 프랜차이즈 공세에 밀려 동네 빵집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때 '베비에르'는 친환경 재료를 고집, 독특한 판매 전략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쌓아왔다.

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 제빵설비를 갖춘 작업실을 설치, 크림치즈와 레몬이 들어간 '모찌모찌' 블루베리와 아몬드 분말이 들어간 '블루베리파이' 바게트를 얇게 썰어만든 '바게트토스트' 등 60여 종의 빵을 판매할 예정이다.

'베비에르' 과자점은 유기농 밀가루와 유산균, 발효종을 가미해 빵을 만든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초빙한 셰프들이 1, 2주 정도 머물면서 직원들에게 제빵 노하우를 알려주고 메뉴를 함께 개발하는 것도 대형 프랜차이즈 틈바구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직원들은 들어온 지 3년이 지나면 일본으로 연수 겸 여행을 간다. 5년차부터는 유럽에서 견문을 넓힌다. 매장마다 시식코너를 만들어 놓고 손님들이 맛을 보고 빵을 사가도록 한다. 당일생산, 당일판매를 목표로 하고 남은 빵은 매일 보육원이나 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에 보내준다.

'건강한 빵'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프랜차이즈 문의가 늘어나고 있지만 마옥천 대표는 "정중히 사절한다"며 이유로는 "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경영 철학 때문이다"고 말했다. 마옥천 대표는 "빵 하나를 굽더라도 장인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며 추가로 분점을 내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웃음지으며 말했다.

/김영태기자

한방의료 재능 나눔 · 농촌일손돕기 실시

전북농협지역본부와 원광대학교 경혈침구학회 학생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과 구천동농협(양승옥 조합장)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랑회원인 원광대학교 '한의과 경혈침구학회' 학생들과 함께 무주 구천동농협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 재능 나눔을 실시, 더불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원광대학교 '한의과 경혈침구학회' 학생 20여명이 무주군 설천면·무풍면 어르신들에게 자세한 건강 상담과 함께 개인별 '침, 부항, 뜸' 등 한방의료 재능 나눔을 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해 농사일이 늦어진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도 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양승옥 구천동농협 조합장은 "농촌 어르신들이 더운 날씨에 농사일로 많이 지쳐 있었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와서 한방의료 봉사와 일손 돕기까지 해줘서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라며 감사에 뜻을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내 6개 시지역 소비심리 '뚝'

한국은행 전북본부, 올 7월 중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4.1로 전월(107.2)보다 3.1p 하락

전북도내 소비심리가 떨어졌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7월10일에서 20일 사이 전북도내 6개 시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가 104.1로 전월(107.2)보다 3.1p 하락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7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2018년 7월중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하락 한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4.5p 하락(105.5→101.0)했다. 소비자동향지수(CSI)전북지역 소비자의 현재생활형편(94→93) 및 생활형편전망(102→99) CSI는 전월보다 각각 하락가계수입전망 CSI는 전월보다 상승(99→100)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출전망 CSI는 전월에 비해 하락(108→106)한곳으로 조사됐다.

지출항목별로는 교육비 및 교양·오락·문화비는 전월과 동일한 가운데, 내구재, 외식비, 의료·보건비 등은 하락, 의류비, 여행비는 전월에 비해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고용부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범위내 지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3조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기획조정실장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도 병행해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 축소를 검토해왔지만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안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실장은 "관계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경영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단위 확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농협 정읍시지부 · 전북과학대학교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행사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조천형)와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종)은 지난 24일 정읍시 정우면 산북마을에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협약식 및 명예이장 위촉식을 개최하고 전북과학대학교(총장 황인창) 안경광학과 오승진 교수를 산북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미선 정우면장, 조천형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장, 허수종 샘골농협 조합장, 전북과학대학교 안경광학과 두하영 학과장, 오승진 교수 및 학생들과 마을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회관에서 명예이장 위촉식을 갖고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력검사 및 근용안경 제작 등 재능기부활동을 실시했다.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기업CEO와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운동이다.

한편, 전북과학대학교는 매년 정읍관내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대학생 재능기부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강대환 기자

가전매장 종착지' 일렉트로마트 27일 이마트 전주점서 오픈

전문 가전매장 일렉트로마트가 오는 27일 이마트 전주점에 들어선다.

25일 이마트 전주점에 따르면 일렉트로마트는 기존 가전매장의 틀을 깨는 다양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으며 남성 고객들은 물론 여성 고객들의 관심까지 끄는 데 성공한 가전 전문점이다.

특히 일반 가전매장에 없는 드론 체험존, 피규어 전문존, 3D 프린터존 등의 콘텐츠를 넣어 차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전주점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디지털 가전의 경우 애플샵과 다이슨 매장이 입점하고 삼성, LG의 IT 매장과 모바일 브랜드숍이 신규 오픈한다. 65~88인치의 프리미엄 및 초대형 TV 상품도 강화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피규어를 비롯한 건담 전문매장이 전북지역 최초로 들어선다.

/김영태 기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순창지부, 휴가철 맞이 행복홀씨 입양사업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순창지부(대표 유선경, 이하 소비자연합)가 휴가철을 맞아 최근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환경정화 활동은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했으며 소비자연합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순창의 관광명소인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환경정비 활동에 앞장섰다.

유선경 대표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청정 힐링'을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앞장설 것이며, 관내 군민들이 클린순창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며 앞으로의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순창읍 관계자는 "30도를 넘어서는 폭염 속에서도 순창읍과 강천산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비자연합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순창지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상담·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참여해 지역발전과 클린순창에 앞장서고 있다.

/순창=이양원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 2018 - 다 - 37호
(심의일자 : 2018. 1. 30 현재)

전북은행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1588 - 4477

www.jbbank.co.kr